

#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과 노부모 돌봄과의 관계

양숙미<sup>†</sup>

## 요 약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여부가 중장년층 성인자녀의 노부모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임의표집에 의해 A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층(55년생~63년생) 성인자녀 331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가 노부모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 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할수록 노부모에 대한 전체적인 돌봄(경제적 돌봄, 정서적 돌봄, 신체적 돌봄)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할수록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장애인가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장기요양보험제도, 중장년층 성인자녀, 노부모 돌봄, 가족지원정책, 정서적 친밀성

## The relation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wareness and the aged parent-supporting

Sook-Mee Yang<sup>†</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whether to recogni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have affected on aged parent-supporting. The research method was used self-report questionnaire to 331 persons who was supported their parents. And I used the Frequency, simple linear regression as an analysis methods.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Educational background, the emotional intimacy of the subjects, and the recognition degree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physically parent-supporting consciousness. The researchers suggest the need of family support system based on the result for decrease the parent-supporting burden in middle age generation.

**Key words** : Long-term Care Insurance, Middle Aged Children, Aged Parent-Supporting, Family Support Policy, Emotional Intimacy

<sup>†</sup>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논문접수: 2011년 9월 29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1년 10월 14일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부모 돌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족 내에서 노부모 돌봄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중장년층의 성인자녀는 부모와 어린 자녀세대를 돌봐야 하면서 자신의 노후 생활도 준비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의 돌봄 부담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부모가 만성적인 질병과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부모 돌봄의 문제를 가족문제로 보기 보다는 사회문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졌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그 결과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건강보호 서비스,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년기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사회적인 연대책임의 원리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로써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부모 돌봄 부담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으로 개발된 사회적 돌봄 체계라는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노인 돌봄의 문제는 가족들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와 국가가 현대 사회에 부합되는 노인돌봄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아래,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8][11][22][23]. 이 연구들은 논의의 초점을 우리 사회의 노인돌봄체계를 개발하는데 둠으로써 노인 돌봄 문제를 사회문제화 하도록 문제제기를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돌봄 체계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중장년층의 노부모 돌봄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정서적인 부담, 그리고 노부모 보호에 따르는 신체적인 건강악화를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노부모를 돌보는 중장년층의 성인자녀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비용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돌봄 의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에 노인과의 경험이 돌봄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거나 가족 내에서 돌봄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기혼여성의 삶의 질과 돌봄 문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4][6][13][15][19]. 이 연구들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결혼유무, 직업과 소득)과 가족 특성(출생순서, 조부모동거경험, 결혼 후 부모동거경험, 정서적 친밀성 등)에 의해 돌봄 의식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했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상과 같이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연구대상을 달리하여 돌봄 의식의 차이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노부모를 돌봐야 할 부담이 있는 중장년층의 노부모 돌봄에 관한 연구는 통계청의 기술적 조사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과 이용경험을 포함하여 중장년층의 노부모 돌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여부가 중장년층의 노부모 돌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중장년층의 노부모 돌봄 문제와 유형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와 부부중심의 핵가족화는 노부모를 돌보는 것에 부담을 갖게 하였고, 특히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노부모를 돌보는 경우 이로 인한 가족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인구에 대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을 높여준다[9]. 따라서 노부모의 돌봄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2009)[25]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 비율은 2007년 39.9%에서 2009년 31.7%로 8.2%감소하였으며 이들 중 35.4%가 본인

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비율은 2007년 60.1%에서 2009년 68.3%로 노인 단독가구 비율이 8.2% 증가하였다. 노인이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편해서가 33.6%,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가 2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 스스로도 경제적 능력이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자녀들과 동거하면서 서로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위의 결과는 노인의 돌봄 문제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가능성도 노후대책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노부모는 자신의 삶을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고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대책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즉, 노부모는 자녀에 대해 신체적 돌봄, 정서적 돌봄, 그리고 경제적 돌봄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장년층 성인자녀가 노부모 돌봄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문제와 돌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돌봄 문제와 경제적 돌봄이다. 우리나라 노인이 빈곤한 이유는 조기 은퇴,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자녀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로 저축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저축할 여력이 있더라도 자녀의 결혼비용이나 주거마련을 위해 지출함으로써 경제적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2009)[25]의 사회조사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50.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노후준비의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35.8%, 예금적금이 24.4%, 사적연금이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49.4%중 노후준비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7%, 자녀에게 의탁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31.6%,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노인비율이 5.0%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노인 응답자 중 과 반수 이상이 노후준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장년층의 성인자녀 부부가 노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시기는 그들 자녀들의 교육비나 결혼비용들을 지원해야 하고,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와 중첩될 가능성이 많아 노부모에 대한 돌

봄 문제는 큰 부담이 된다.

둘째, 심리정서적인 돌봄 문제와 정서적 돌봄이다. 노년기에 주로 부딪치는 심리적 상실은 배우자, 친구, 친족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 상실과 정년퇴직이나 노인에 대한 경시, 사회적 지위나 특권의 상실 같은 사회적 상실이 있다.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기대감,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의 갈등, 고령적인 수입의 단절과 공적지위와 권위의 상실, 그리고 대인관계의 축소 등은 노인에게 소외와 고독감을 느끼게 한다.

정서적 돌봄은 노부모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노년기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등 노부모의 심리·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돌봄을 의미한다. 노년기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돌봄보다 정서적 돌봄 및 동반자 의식이며,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도 그들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돌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10] 가족결속의 규범이 있고 친교적인 부모-자녀관계는 부모 돌봄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고, 자녀는 정의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하였다 [14][26][27]. Lechner(1991)도 미래의 노부모에 대한 책임감은 부모와의 과거 및 현재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때 더욱 증가된다고 하였다.[28]

셋째, 신체 및 건강상의 돌봄 문제와 신체적·서비스 돌봄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약화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성 질환인 치매, 중풍노인의 증가 뿐 아니라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직장여성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노인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를 가족, 친척 등의 사적인 돌봄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1]의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유병노인의 증가로 인해 2008년 노인진료비는 10조 4,904억 원이다. 이 금액은 전년도의 진료비 9조 813억 원에 비해 15.5%(1조4,091억 원) 증가한 것이고, 전체 요양급여의 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되는 노인의료비의 비율을 볼 때 노인 장기요양급여는 매우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적인 돌봄은 노년기의 노화과정으로 인해 발

생된 질병의 관리와 건강상의 보호제공, 그리고 신체적인 기능저하로 인한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중을 제공하는 돌봄을 의미한다.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돌봄과 함께 신체적 돌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우 노부모 돌봄의 부담은 매우 커지게 된다.[1]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은 특히 동거가족의 자녀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서 동거자녀의 부담이 매우 크다[12].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확대와 서비스 이용경험이 필요하다[19].

## 2.2.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는 노부모 돌봄에 관한 연구이기 보다는 일반적인 노인 돌봄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노인 돌봄의 문제는 가족 돌봄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와 국가가 현대 사회에 부합되는 노인돌봄체계를 모색하는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8][11][22][23]. 이 연구들은 논의의 초점을 우리 사회의 노인돌봄체계를 개발하는데 돌으로써 노인 돌봄의 문제를 사회문제화 하도록 문제를 제기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돌봄 문제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반면에 가족의 관점을 반영한 연구들도 있다. 이 논문들은 가족 내에서 돌봄 역할을 담당하는 기혼여성의 삶의 질과 돌봄 문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4][6][13][15][19]. 이 연구들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결혼유무, 직업과 소득)과 가족 특성으로는 출생순서, 조부모 동거경험, 결혼 후 부모동거경험, 정서적 친밀성 등이 돌봄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노부모 돌봄의 책임, 가사책임, 사회생활까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12][21]. 또한 여성이 신체적으로 노부모를 더 많이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21][24].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은 20~30대는 경제적 돌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15][21][24]. 30~40대는 정서적 돌봄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5][16][19]. 50대는 신체적 돌봄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5][16][19]. 반면에 경제적 돌봄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들도 있다[2][21]. 노인돌봄에 대한 의식이 연령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 개인마다 생활양식과 태도, 가족의 여건과 상황, 지역적 차이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요인은 전반적으로 노부모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수준이 높고, 고소득 직업에 종사할수록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돌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19][24]. 반면 김경옥·서정아(2009)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 때 정서적 돌봄과 신체적 돌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는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신체적 돌봄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가족 특성요인은 출생순서, 부모동거경험, 조부모와의 동거경험, 친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한 논문들이다. 출생순위와 관련해서는 외동딸일 때가 첫째나 둘째보다 더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16][24].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을 때 정서적 돌봄과 신체적 돌봄에서 높게 나타났다[3][5][24].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결혼 후 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을 때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19]. 또한 가족과의 친밀성 요인이 노부모에 대한 정서적 돌봄에 영향을 미친 연구들이 있다[3][13][19][20].

이상과 같이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연구대상을 달리하여 노부모 돌봄의 책임의식에 관해 폭넓은 연구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할 중장년층의 돌봄문제와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노년기의 장기요양보호 욕구가 크게 증대하지만 공공시설은 대부분 극빈 또는 저소득계층의 일부가 이용하고 있다. 중산소득계층은 유료복지시설이나 민간요양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용비용이 고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지 않은 가정에서는 취업이나 직장근무를 포기하면서까지 간병요양을 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간병요양을 포기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노인학대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실정이다[17][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인 사회적 돌봄 체계로서 장기요양보험제

도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이용경험 유무가 노부모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노부모 돌봄의 1차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중장년층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임의표집에 의해 선정하였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할당표집에 의해 331명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장년층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31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45	43.8
	여성	186	56.2
연령	40대	176	53.2
	50대	155	46.8
출생 순위	외동,첫째	91	27.5
	둘째	72	21.8
	셋째	76	23.0
	넷째이하	92	27.8
학력	중학교이하	54	16.3
	고등학교	144	43.5
	전문대학/대학	112	33.8
	대학원이상	21	6.3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39	42.0
	300~399만원	73	22.1
	400~499만원	60	18.1
	500만원 이상	59	17.8
경제 수준	상층	5	1.5
	중상층	48	14.5
	중층	185	55.9
	중하층	75	22.7
	하층	18	5.4
장기 요양 보험 인식	매우 잘 알고 있다	43	13.0
	어느정도 알고 있다	223	67.4
	들어보았지만 잘 모른다	39	11.8
	전혀 모르고 있다	26	7.9
합계		331	100.0

위의 <표 1>에서와 같이, 성별은 여성이 186명(56.2%), 남성이 145명(43.8%)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176명(53.2%), 50대가 155명(46.8%)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넷째이하가 92명(27.8%)으로 가장 높았으며, 외동과 첫째가 91명(27.5%), 셋째가 76명(23.0%), 둘째가 72명(21.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상 144명(43.5%), 대졸이상 112명(33.8%), 중학교 졸업이하 54명(16.3%), 대학원 이상 21명(6.3%)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300만원 미만 139명(42.0%), 300~399만원 73명(22.1%), 400~499만원 60명(18.1%), 500만원 이상이 59명(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층이 185명(55.9%), 중하층 75명(22.7%), 중상층 48명(14.5%), 하층 18명(5.4%), 상층 5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에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가 43명(13.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23명(67.4%), 들어는 보았지만 잘 모른다 39명(11.8%), 전혀 모르고 있다 26명(7.9%)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연구대상자의 92% 이상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측정도구

##### 3.2.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을 위해 노부모 돌봄에 관한 책임의식과 정서적 친밀성에 관한 척도를 활용하였고,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를 질문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내용은 다음의 <표 2>과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설문지 구성

N=331				
번 인	척 도	문항내용	문항	
종 속	돌봄	경제적 돌봄	생활비부담, 병원비부담, 용돈, 여행비지원, 관혼상제비지원	5
		정서적 돌봄	대소사상의, 부모님과대화, 가족여행, 부모님이해, 부모님의견존중	5
	신체적	건강체크, 외출시동행,	5	

	돌봄	부모님을 도와드림, 생필품구입, 부모님수발	
독립	사회경제적 수준	학력, 월평균 소득수준	2
	정서적 친밀성	동거선호, 돌봄, 솔직함, 좋은 감정, 존경, 노력, 사고방식수용, 염려, 중요한 사람, 비판수용, 서로의지, 분가, 만남, 기분, 믿음 등)	16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		1
통계	성별, 연령, 출생순위		3
총계			37

3.2.2. 측정도구의 신뢰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아래의 <표 3>과 같이 노부모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과 노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 2가지이다.

<표 3> 측정도구의 설문지 구성과 신뢰도

N=331

척도		문항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	경제적 돌봄	5	.857
	정서적 돌봄	5	.818
	신체적 돌봄	5	.813
전체 돌봄의식		15	.917
노부모와의 친밀성		16	.947

노부모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 척도는 Turkman과 Lorge(1953)가 개발한 돌봄 의식 척도를 본 연구의 조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경제적 돌봄 5문항, 정서적 돌봄 5문항, 신체적 돌봄 5문항,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적극반대' 1점, '반대' 2점, '보통' 3점, '찬성' 4점, '적극찬성' 5점으로 구성되어 총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은 최소 15점에서 최고 75점에 이른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부모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신뢰도 계수(Chronbach Alpha 값)는 경제적 돌봄에 대한 책임 .857, 정서적 돌봄에 대한 책임 .818, 신체적 돌봄에 대한 책임 .813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돌봄에 대한 책임의 신뢰도 계수

도 .917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친밀성 척도는 Walker & Thompson (198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최소 16점에서 최고 80점에 이른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친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947로 높게 나타났다. 노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은 총 16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Chronbach Alpha 값이 .947로 나타났다.

3.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중장년층의 노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정도가 노부모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노부모 돌봄 전체에 미치는 영향

소득과 학력의 사회경제적 수준, 노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이 중장년층의 노부모 돌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노부모의 돌봄 전체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제1모형				제2모형				
	B	베타	t	VIF	B	베타	t	VIF	
독립변수	학력	1.451	.152	3.129 **	1.270	1.511	.158	3.226 **	1.303
	월평균소득	.995	.175	3.607 ***	1.271	.957	.168	3.468 **	1.282
	정서적 친밀성	.370	.524	12.026 ***	1.026	.368	.521	11.750 ***	1.073
	장기요양보험인식	.864	.081	1.873	1.021	.918	.087	1.994*	1.028
통제변수	성별				-.144	-.009	-.204		1.106
	연령				1.451	.093	2.123		1.046
	출생순위				-.243	-.036	-.837		1.023

(상수)	26.879	26.786
$R^2$ ( <i>adj. R^2</i> )	.397(.390)	.407(.395)
$\Delta R^2$	.397	.010
F	53.704 ***	31.721 ***

\*p<.05, \*\*p<.01, \*\*\*p<.001

학력, 월평균소득, 정서적 친밀성, 장기요양보험 인식으로 구성된 기본모형(제I모형)에서는 학력, 월평균소득, 정서적 친밀성이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설명력은 39.7%이었다.

독립변수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성별, 연령, 출생순위를 통제변수로 설정한 제II모형에서도 학력, 월평균소득, 정서적 친밀성,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할수록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II모형의 설명력은 40.7%이었다. 정서적 친밀성( $\beta=.524$ ), 월평균소득( $\beta=.168$ ), 학력( $\beta=.158$ ), 장기요양보험인식( $\beta=.087$ )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노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이 높고, 월평균 소득이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할수록 전체적인 노부모 돌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2. 노부모 경제적 돌봄에 미치는 영향

학력, 월평균소득,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이 중장년층의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돌봄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학력, 월평균소득, 정서적 친밀성, 장기요양보험 인식으로 구성된 기본모형에서 학력, 월평균소득, 정서적 친밀성이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설명력은 27.0%이었다. 성별, 연령, 출생순위를 통제변수로 한 제II모형에서도 학력, 월평균소득, 정서적 친밀성이 여전히 경제적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II모형의 설명력은 28.0%이다.

정서적 친밀성( $\beta=.393$ ), 월평균소득( $\beta=.203$ ), 학력( $\beta=.106$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친밀성이 높고, 월평균 소득이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돌봄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5> 노부모의 경제적 돌봄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제I모형				제II모형				
	B	베타	t	VIF	B	베타	t	VIF	
독립변수	학력	.391	.106	1.991*	1.270	.392	.106	1.974 *	1.303
	월평균소득	.466	.213	3.987***	1.271	.445	.203	3.805 ***	1.282
	정서적친밀성	.110	.406	8.475***	1.026	.107	.393	8.032 ***	1.073
	장기요양보험인식	.136	.033	.699	1.021	.161	.039	.825	1.028
통제변수	성별				.340	.056	1.131	1.106	
	연령				.481	.080	1.655	1.046	
	출생순위				-.006	-.002	-.047	1.023	
(상수)	10.501				10.344				
$R^2$ ( <i>adj. R^2</i> )	.270(.261)				.280(.265)				
$\Delta R^2$	.270				.011				
F	30.100 ***				17.971 ***				

\*p<.05, \*\*p<.01, \*\*\*p<.001

### 4.3. 노부모의 정서적 돌봄에 미치는 영향

학력, 월평균소득,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이 노부모에 대한 정서적 돌봄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학력, 월평균소득, 정서적 친밀성,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으로 구성된 기본모형(제I모형)에서는 학력, 월평균소득, 정서적 친밀성이 정서적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설명력은 37.0%였다. 성별, 연령, 출생순위를 통제변수로 한 제II모형에서도 학력, 월평균소득, 정서적 친밀성이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II모형의 설명력은 38.1%이었다.

정서적 친밀성( $\beta=.491$ ), 학력( $\beta=.207$ ), 월평균소득( $\beta=.143$ )의 순으로 노부모에 대한 정서적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이 높고, 학력이 높고,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정서적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는 정서적 돌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노부모의 정서적 돌봄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제I모형				제II모형				
	B	베타	t	VIF	B	베타	t	VIF	
독립변수	학력	.698	.199	4.019 ***	1.270	.724	2.07	4.135 ***	1.303
	월평균소득	.310	.149	3.006 **	1.271	.299	.143	2.894 **	1.282
	정서적친밀성	.127	.490	11.003 ***	1.026	.127	.491	10.824 ***	1.073
	장기요양보험인식	.121	.031	.700	1.021	.139	.036	.806	1.028
통제변수	성별								
	연령								
	출생순위								
(상수)	8.406				8.411				
R <sup>2</sup> (adj. R <sup>2</sup> )	.370(.363)				.381(.368)				
ΔR <sup>2</sup>	.370				.011				
F	47.964 ***				28.458 ***				

\*p<.05, \*\*p<.01, \*\*\*p<.001

4.4. 노부모의 신체적 돌봄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수준, 월평균소득,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이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학력, 월평균소득, 정서적 친밀성, 장기요양보험인식으로 구성된 기본모형(제I모형)에서는 학력, 월평균소득, 정서적 친밀성, 장기요양보험인식이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설명력은 31.8%이다. 성별, 연령, 출생순위를 통제변수로 한 제II모형에서도 학력, 월평균소득, 정서적 친밀성, 장기요양보험인식이 여전히 돌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II모형의 설명력은 32.7%이었다.

정서적 친밀성(β=.498), 장기요양보험인식(β=.152), 학력(β=.108), 월평균소득(β=.098) 순으로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친밀성이 높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하고, 학력이 높고,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중장년층의 노부모 신체적 돌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제I모형				제II모형				
	B	베타	t	VIF	B	베타	t	VIF	
독립변수	학력	.362	.099	1.919 *	1.270	.394	.108	2.066 *	1.303
	월평균소득	.219	.100	1.948 *	1.271	.213	.098	1.883 *	1.282
	정서적친밀성	.133	.491	10.600 ***	1.026	.135	.498	10.529 ***	1.073
	장기요양보험인식	.606	.149	3.231 **	1.021	.618	.152	3.293 **	1.028
통제변수	성별								
	연령								
	출생순위								
(상수)	7.972				8.031				
R <sup>2</sup> (adj. R <sup>2</sup> )	.318(.309)				.327(.313)				
ΔR <sup>2</sup>	.318				.010				
F	37.923 ***				22.433 ***				

\*p<.05, \*\*p<.01, \*\*\*p<.001

5.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이 노부모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노부모 돌봄은 3가지 유형, 즉 경제적 돌봄, 정서적 돌봄, 신체적 돌봄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과 3가지 돌봄 의식 전체 및 각 유형별 돌봄 의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가 중장년층의 성인자녀이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경제적 수준 변수인 소득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에 대한 전체적인 돌봄, 즉 경제적 돌봄, 정서적 돌봄, 신체적 돌봄 모두에 영향을 미쳐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변수는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확히 인식할수록 신체적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층이 인생의 주기에서



생산성을 추구하고 직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과 수발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서적 친밀성 요인은 중장년층 노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이 높을수록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이 높을수록 노부모 돌봄에 있어 신체적으로 돌보는 것이나 정서적 돌봄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장년층 성인자녀 세대들은 사회경제적 수준, 즉 소득과 학력수준이 높고, 노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확히 인식할수록 노부모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인 효 의식을 기반으로 사적인 차원에서 노부모 돌봄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노부모 돌봄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 제도가 생산적 시기인 중장년층의 노부모에 대해 신체적 돌봄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현재까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대상자가 만성질환 노인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기능수행정도가 저하되어 있는 노령장애인지 확대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 동작기능 수행 장애가 있는 노부모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노부모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인 노부모에 대한 사적인 돌봄 체계를 지원하고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부모를 돌보는 중장년층 성인자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으로써 연금급여, 세제혜택(소득세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할증 지원, 무주택노부모 부양자녀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분양 등) 등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부모 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 및 야간보호서비스, 요양보호사 파견 등)을 활성화시키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부분에서 노부모에 대한 돌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 성인자녀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의료비 절감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 2008~2009년 진료비 통계지표. 보도자료.
- [2] 고희만(2006). 직장인의 노인돌봄의식에 관한 연구: 남양주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권기갑(2009). 대학생의 노인돌봄의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경옥(2009). 가족친밀감이 농촌 청소년의 노인돌봄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남금(2009). 딸과 며느리의 부모 돌봄의식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미령(2010). 베이비붐세대, X세대, 준고령 세대 여성의 삶의 질 구성요소 비교연구. 2010년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 [7] 김지영(2002). 대학생의 노인돌봄 의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김태현(2010).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연금포럼. Vol. 37, pp4~11.
- [9] 김형수, 모선희, 유성호, 윤경아(2009), 「현대 노인복지론-3판」, (주)학지사.
- [10] 박성수(2000), 「노인돌봄형태와 돌봄의식에 대한 연령별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박시내 · 심규호(2010).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2010년 연구 보고서 제14장. 삼성경제연구소.
- [12] 박영숙(2010). 노인의 이미지와 가족주의 가치관이 돌봄의식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박영자(2009). 노인돌봄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동대문구 어린이집 학부모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4] 서명숙(2010). 대학생과 부모와의 관계가 노인돌봄의식에 미치는 영향: 전남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서정아(2008). 직장여성의 노인돌봄의식에 관한 연구: 간호사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6] 이병순(2006). 맞벌이 여성의 노인돌봄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교환론과 상호적 상징작용론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이운승(2007),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8] 이정미(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 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이종우(2009). 기혼여성의 부모돌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이호정(2008).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노인에 대한 태도와 돌봄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 정선주(2003). 청·장·노년기의 노인돌봄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 정의신(2010). 한국의 국민연금과 사적이전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 전후세대의 은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3] 최성철(2007).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 최연희(2008). 노인돌봄의식에 관한 연구: 20~30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통계청(2009), 「2009년 사회조사 결과 : 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사회참여」 보도 자료

[26] Cicirelli, V. G.(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November. 815-824.

[27] Coffrey, Rosalie A(1992), Caregiving to the Elderly in Northeast Thailand,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7, 117-134.

[28] Lechner, V. M.(1991), Predicting Future Commitment to Care for Frail Parents among Employed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8, 1-22.



### 양숙미

1991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199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2000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2000~현재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장애인복지  
E-Mail: smyangc@nsu.ac.kr